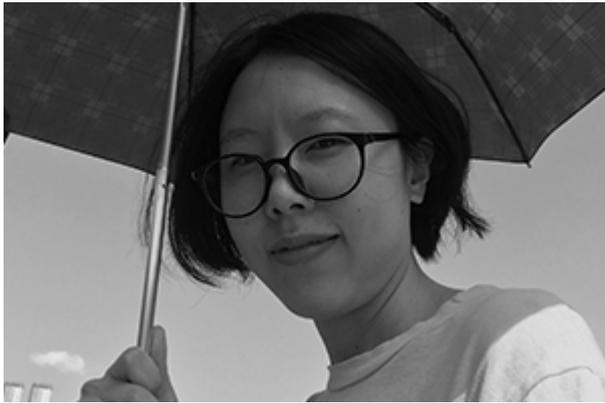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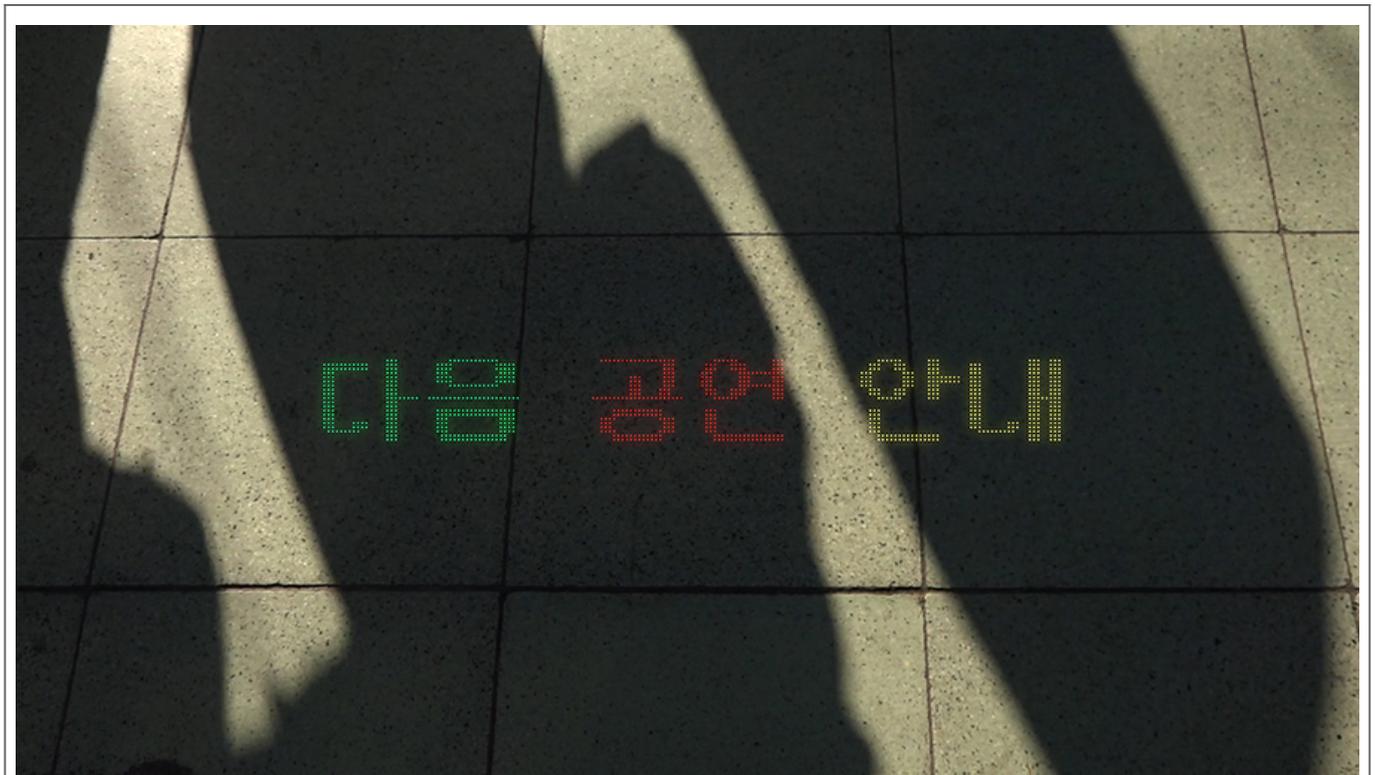


# 김혜연 KIM Hyeyeon



김혜연은 2019년 개봉한 영화 《다들 잘 지내요》의 감독이자, 2018년 개봉한 영화 《다들 잘 지내요》의 공동 감독이다. 김혜연은 2018년 개봉한 영화 《다들 잘 지내요》의 공동 감독이자, 2019년 개봉한 영화 《다들 잘 지내요》의 감독이다. 김혜연은 2018년 개봉한 영화 《다들 잘 지내요》의 공동 감독이자, 2019년 개봉한 영화 《다들 잘 지내요》의 감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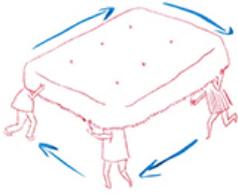
<김혜연> 《다들 잘 지내요》(Trailer for Take Care), 2019년 8월 20일, 2019

## # Q&A

Q. 김혜연 감독님은 어떤 감독님이신가요?

A. 김혜연 감독님은 2019년 개봉한 영화 《다들 잘 지내요》의 감독이자, 2018년 개봉한 영화 《다들 잘 지내요》의 공동 감독입니다. 김혜연 감독님은 2018년 개봉한 영화 《다들 잘 지내요》의 공동 감독이자, 2019년 개봉한 영화 《다들 잘 지내요》의 감독입니다. 김혜연 감독님은 2018년 개봉한 영화 《다들 잘 지내요》의 공동 감독이자, 2019년 개봉한 영화 《다들 잘 지내요》의 감독입니다.

NOTE FOR ACTORS



Four people keep circling.  
You desperately want to catch up the person in front of you,  
while keeping the square.  
You desire.  
You hesitate.  
You don't know what to do.  
But You keep going.  
Make any sound or any gesture that comes naturally.  
Once camera begins to run, it will go for 2min45sec.  
Any mistake or failure will be part of the shot.



Running Square, 2011, 21.6x27.9cm, SD, 2011

Running Square, 16mm, SD, 2011

Q. Running Square의 구성과 연출에 대해 설명하시오.

A. Running Square (2019)는 박찬욱 감독의 단편 영화이다. 이 영화는 네 명의 배우가 정사각형을 이루고 흰 천을 들고 달리는 것을 보여준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완벽함'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배우들은 각자 앞사람을 따라가려 하지만 정사각형을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한다. 이 영화는 2분 45초로 짧지만, 배우들의 미세한 움직임과 표정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한다. 이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초기 작품 중 하나로, 그의 독특한 연출 스타일을 보여준다.

